

▶ 달러/원 주간 전망

•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 속 美 물가·위안 움직임 촉각

서울, 4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관세 정책 파장 속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정도를 살피며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35-1475원이다.

5년 전 팬데믹 위기 시절 시장 변동성이 재현될 정도로 국내외 금융시장은 연일 휘청이고 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에 경기 침체가 시장 주요 테마로 급부상한 가운데 위험자산과 통화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전과 다른 점은 미국 금융시장 조정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공식 발효된 가운데 오는 9일에는 국가별 개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4일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뉴욕 증시 폭락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터라 국내외 금융시장은 당분간 약세 변동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에 대해 '아주 곧' 이뤄질 것을 예고한 만큼 아직 시장 타격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이번 주는 미국 3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결과에 더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 후반에 나올 은행 실적도 챙겨봐야할 변수다.

달러/원 환율은 다행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떨쳐냈지만 전방위적인 위험회피 환경에서 수시로 상승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미국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 시점부터 외인들은 코스피시장에서 연일 1조원대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4월은 외인 배당 역송금 수급을 크게 의식하는데 외인 주식 매도세까지 더해짐에 따라 수급 균형이 깨질 리스크가 커졌다.

지난주 후반 외환당국은 환율 상승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선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은 추정했다. 하지만 환율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1430원에서 지지받고 1460원대로 재빨리 뛰어오른 터라 환율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탄핵 정국이라는 원화 자체 이슈는 해소됐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 국면에서 원화의 입지는 그닥 좋지 않다. 달러는 물론이고 특히 위안 약세 변동성 확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주 원화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시 높은 변동성 장세를 겪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하향 안정된 흐름을 유지한 달러/위안은 주요 저항선인 7.3위안선까지 올라왔다. 미국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전과 다른 위안 스탠스를 가져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중국인민은행의 환율 고시 수준에 당분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충격에 휩싸인 시장, 더 큰 관세 소용돌이에 대비하다

뉴욕, 4월7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5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낸 미국 증시는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글로벌 자산 가격을 뒤흔든 이후 주식 시장이 최소한 단기 바닥에 근접할 수 있다는 신호를 찾으려 할 것이다.

벤치마크 S&P500 지수(.SPX)는 2020년 3월 이후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 지수(.IXIC)는 지난 금요일 12월 사상 최고치 대비 20% 이상 하락해 기술주 중심의 지수가 약세장에 있음을 확인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는 12월 사상 최고치 대비 10% 이상 밀려 한 주를 마감해 우량주 지수도 조정 받았다.

지난 수요일 트럼프 관세 부과 발표로 시장이 급락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4월 9일로 예정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코헨 앤 스티어스의 다중 자산 솔루션 책임자인 제프리 팔마는 "관세, 보복 관세, 이것이 어디에서 끝날지, 어디서 흔들릴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 급락한 S&P500 지수는 2월 19일 사상 최고치 대비 17% 이상 하락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이틀 동안 S&P500 기업들은 약 5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었는데, 이는 이틀 연속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존 핸콕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매튜 미스킨은 "시장은 스스로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종류의 하락은 ... 신뢰를 흔들 수 있으며 실제로 경제 활동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와 수십 개 국가에 대한 높은 목표 관세를 포함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무역 장벽이 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로 반격하면서 무역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경제 및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JP모간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을 이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와 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양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씨티의 전략가인 스콧 크로너트는 금요일 메모에서 트럼프의 협상 기회에도 불구하고 "협상 기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협상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이미 소비자 및 기업 신뢰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투자자 불안을 나타내는 옵션 기반 지수인 Cboe 변동성 지수(.VIX)는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개인투자자 협회 설문조사에서 약세 심리는 61.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관세로 인해 전망이 흐릿해진 가운데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들의 분기 보고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은 암울한 전망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LSEG IBES에 따르면 1분기 S&P500 기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는 주요 은행인 JP모간(JPM.N)과 웰스파코(WFC.N)가 4월11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RBC 캐피탈 마켓 전략가들은 금요일 메모에서 "현재 매출 전망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S&P500의 2025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인 키스 레너는 시장 매도세와 비관론의 증가는 주가를 부양할 뉴스의 기준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월간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영향에 앞서 미국 인플레이션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관세 발표 이후 올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연준 펀드 선물은 올해 100bp 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금요일에 관세가 "예상보다 크다"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 등 경제적 여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헨 앤 스티어스의 팔마는 앞으로 며칠 동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급격한 시장 움직임 측면에서 정말 큰 이틀을 보냈다"라며 "우리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은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Full Story)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Keywords: USA-STOCKS/WEEKAHEAD (SCHEDULED COLUMN)

▶ 주간 세계 5대 이슈

• 보복 관세, 美 CPI, 기업 실적 등

1. 관세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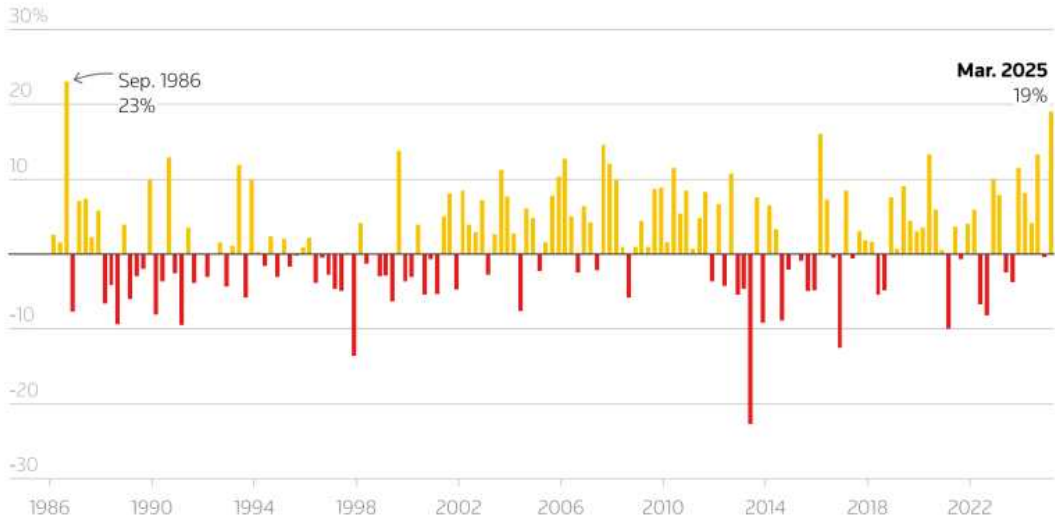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지난 30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매도세를 보이며 미국 주식을 버리고 안전한 보석을 찾아 나서고 있다. 달러는 일반적으로 선택의 피난처였다. 그러나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미국 행정부의 고립주의적 성향이 커지면서 달러는 점점 더 빛을 잃고 있다. 금,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은 모두 국제 가격과 함께 급등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트럼프와 그의 팀은 시장도 뒤흔들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Gold at new highs on tariff uncertainty

Gold prices are currently hovering above \$3,100 an ounce after logging their **biggest quarterly increase** since 1986.

Quarterly change in gold price



Note: 1 ounce(oz) = 28.35 grams

Source: LSEG Workspace, Reuters analysis

Vineet Sachdev • April 2, 2025 | REUTERS

2. 보복 관세

글로벌 시장은 '해방의 날'의 충격을 느꼈고, 이제 10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관세에 대한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의 날'에 대비해야 한다.

그 징후는 이번 주와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는 맞불 조치를 단행했고, EU는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이 강할수록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시장 전문가들에게 매우 간단한 사실이다.

3. 아시아 제조업의 문제

'팩토리 아시아'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의 명단에 오른 동남아시아 9개국 중 6개국은 32%에서 49% 사이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한 세대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스리랑카는 44%의 고통스러운 인상을 받았다.

이 소식에 아시아 통화는 폭락했고 스리랑카의 국채는 작년 채무 구조조정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이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은 이미 관세로 인한 변동성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의 경우 상황이 더 까다롭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의류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작년에 두 번째로 큰 외화 수입원인 19억 달러를 순 수입했다. 스리랑카 의류협회 공동 포럼

의 요한 로렌스 사무총장은 이 상황을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4. 실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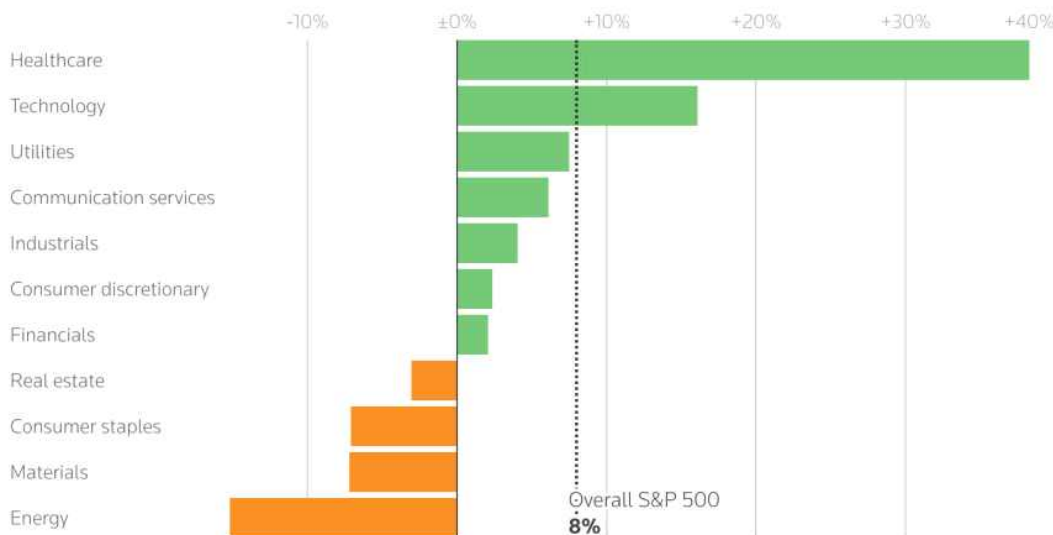
미국 기업들의 중요한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번 주에 시작되며, 여러 주요 은행의 실적이 발표된다. 투자자들은 S&P500 지수가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한 이후 실적 호조가 주식에 대한 열기를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JP모간, 웰스파고, 모간스탠리 등이 4월11일에 실적을 발표한다. 델타항공과 코로나 맥주 제조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도 실적을 발표한다. LSEG IBES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S&P500 지수의 1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로 인한 여파가 기업들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10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에도 관심이 집중되며,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 있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Q1 earnings growth poised for a slowdown

Estimated year-over-year earnings growth of S&P 500 subsectors for the first quarter



Note: Data as of March 29.

Source: LSEG I/B/E/S

Prinz Magtulis | REUTERS, April 3, 2025

5. 中 경제지표

목요일에 발표되는 중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중국의 가계가 2월 소비자물가지수 부진 이후 3월에 더 많은 소비를 할 의향을 보였기를 투자자들은 바랄 것이다.

이 수치는 지난달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 소득 증대 및 육아 보조금 제도 신설 등의 조치가 포함된 '특별 행동 계획' 이후 발표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중국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이 견고한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다른 소식으로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원문기사 (Full Story)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Keywords: GLOBAL-MARKETS/THEMES (GRAPHIC)

▶ 주간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4월7일(월)

KDI: KDI 경제동향(2025.4) (12:00)

기획재정부: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_국제차관보 참석 (8~9일, 말레이시아)

** 4월8일(화)

한국은행: 2025년 2월 국제수지(잠정) (08:00)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12:00)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자문회의 (15:00)

** 4월9일(수)

통계청: 2025년 3월 고용동향 (08:00)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 2025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09:00)

한국은행: 2025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12:00)

** 4월10일(목)

기획재정부: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10:00)

기획재정부: 2025년 4월 재정동향(2월말 누계기준) (10:00)

한국은행: 2024년 자금순환(잠정) (12:00)

** 4월11일(금)

관세청: 4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09:30)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10:00)

기획재정부: 2025년 4월 최근 경제동향 (10:00)

한국은행: 2025년 제6차(3.27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4월07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4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3월	3.252T	3.227T
4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3월		1,253.3B
4월7일	17:30	유로존	셉틱스지수	4월	-10.0	-2.9
4월7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2월	0.4%	-0.3%
4월7일	23:00	미국	고용 추이	3월		108.56
4월8일	04:00	미국	소비자 신용	2월	15.00B	18.08B
4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2월	3812.5B	-257.6B
4월8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3월		100.7
4월9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3월		35.0
4월9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4월4일 주간		243.6
4월10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3월	0.2%	0.0%
4월10일	10:30	중국	PPI YY	3월	-2.3%	-2.2%
4월10일	10:30	중국	CPI YY	3월	0.0%	-0.7%
4월10일	21:30	미국	CPI MM, SA	3월	0.1%	0.2%
4월10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31일 주간	223k	219k
4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YY	3월	7.0%	7.0%
4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3월		1,010.0B
4월10-17일		중국	FDI (YTD)	3월		-20.40%
4월11일	03:00	미국	연방예산	3월		-307.00B
4월11일	21:30	미국	PPI MM	3월	0.2%	0.0%
4월11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	4월	54.7	57.0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4월07일 (로이터)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4월7일 (월)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하버드대 행사에서 강연 (오후 11시30분)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등

4월8일 (화)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브링엄영대 메리어트 경영대 행사 참석 (9일 오전 3시)

4월9일 (수)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전 11시)

⊙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연례 신탁협회 회의서 연설 (오후 3시15분)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워싱턴 경제클럽 토론 참석 (10일 오전 1시30분)

⊙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18-19일 회의록 공개 (10일 오전 3시)

4월10일 (목)

⊙ 로리 로건 달러스 연방은행 총재, 달러스 연은 주최 북미 무역 및 이민 관련 행사 환영사 (오후 10시30분)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뉴욕 경제클럽 행사 참석 (11일 오전 1시)

4월11일 (금)

⊙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아칸소주 은행국 행사에서 미국 경제 및 통화정책 관련 연설 (오후 11시)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푸에르토리코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관련 연설 (12일 오전 0시)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